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유동국

광통신, 광원분야 경쟁력 대폭 강화

“내년부터 새롭게 재편되는 광역선도전략산업을 통해 광통신, 광정밀, 광원분야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광주광산업의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의 3대 주력산업으로 성장한 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위해 유 원장은 가장 먼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게는 내부 직원과의 소통에서 크게는 기업, 유관기관, 지역사회, 중앙부처까지 광주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수행업무를 알리고 공유했다.

미래전략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위해 홍보실을 강화하고 기자실을 신설하면서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유 원장은 “기업들이 광주테크노파크의 지원프로그램을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세부지원내용은 물론 우수기업의 성공사례 및 우수제품 등을 널리 알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다.

취임 후 77곳의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친화적 CEO’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유 원장은 “지역기업이 없다면 광주테크노파크의 존립이유도 없다. 지역전략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유망기업과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 원장은 취임 후 10대 유망기업과 10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수도권 소재 기업 7곳을 광주에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대구 등 타시도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3D융합산업육성사업, 산업용 레이저육성사업, 미래형 치과소재부품육성사업,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사업 등 1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광산업에 대한 애정어린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유 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광주광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기업은 물론 지원기관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또 “내년부터는 2단계 광역선도전략산업이 시작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광산업과 자동차산업은 광역선도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정보가전과 디자인산업은 시도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광주의 계획”이라며 “따라서 기존 지역전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앞으로도 전략적인 경영을 통해 광주의 10년 후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선도하겠다”며 “광주산업의 그랜드 디자이너 역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부활 이끈 ‘광주광산업’ 기재부, 성공한 지역혁신클러스터 공식 평가



한국광기술원장 김 선 호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바로 이륙 직전입니다. 광주광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광주 광(光)산업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역혁신 클러스터 성공요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성공한 클러스터 사례로 ‘광주 광(光)산업’을 꼽았기 때문이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은 “광주 광산업은 지역이 처한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방대, 연구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추진됐다”면서 “광범위한 국가전략 산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량 수준에 맞는 소수 산업을 선택한 후 중앙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역량을 집중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광주광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지난 2001년 문을 연 한국광기술원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가능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의 맞춤형인 한국광기술원은 IMF여파로 시름에 빠진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광통신, LED, 적외선 렌즈

등 관련 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광주광산업은 관련기업이 360여곳으로 늘고 올해 매출도 3조원을 앞두고 있는 등 지역전략사업 중 가장 성공한 모범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한국광기술원은 지식경제부와 지역발전위원회, 전국 16개시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에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그는 “광주는 광산업을 통해 ‘첨단산단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삼패인을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 경쟁국인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와 광주광산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광주가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에피웨이퍼와 광스플리터는 중국의 강력한 도전으로 선두자리를 위협받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 초 10개 기업에 LED 에피웨이퍼 제조장비인 MOCVD를 100대 이상 증설했고, 중국 선전에 1,000억원 규모 스플리터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해 광주광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 원장은 올 초 중소기업 LED 기술력 향상에 힘을 쏟았다. 올 초 원내에 별도의 신평원조명단을 구축하면서 가로등, 투광등 등 틈새시장 공략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생존하려면 한발 앞선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광산업은 매우 광범위한 기술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계 1위부터 선진국 대비 30%산업까지 다양하다”면서 “LED, 광통신 등의 기술수위로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렌즈, 센서, 레이저 등 미래성장성이 높고 융합산업 창출 효과가 큰 미래유망산업분야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광주광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기업들이 새로운 각오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광주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등 개발결과를 활용을 본격화하는 한편 유망기업 발굴과 해외기술 교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소장 박 성 주

“GIST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보유한 원천기술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주 GIST 과학기술응용연구소장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실용화 및 기술사업화를 거듭 강조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처럼 박 소장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는 소신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박 소장은 “어렵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따고서

도 장롱 속에 묻혀만 있다면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있겠느냐?” 며 “GIST가 보유한 1,000여건의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과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통합관리시스템과 실용화·기술이전·사업화 모델 프로세스 등 실용화사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에는 교수 1인당 특허보유·출원·등록건수 1위 등의 우수한 실적으로 거뒀고, 지난해에는 21억원의 기술료 수입으로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와 수입액에서 각각 1위, 국내대학 기술료 수입료 절대평가에서 4위, 연구생산성 3.4%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박 소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 원천기술 및 특허확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GIST는 특허와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특허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며 “해외 기업의 다양한 특허 소송과 공격에 대비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해 특허전쟁에도 대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인 광산업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도 보였다.

박 소장은 “GIST는 설립초기 광산업 기획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여해 지역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광산업은 타 산업과의 컨버전스가 매우 용이한 만큼 융합산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면서 “광주 광 산업체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에로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